



[산업] 부활 신호탄 조선업 현대·삼성중 잇따라 수주러시 06



Life

[라이프] 포화 치킨시장 수제맥주로 돌파 치맥전쟁 막 올랐다 너



선수·코치·강연·모델 ‘프로N잡러’ 편견 깨고 치열한 삶 향해 ‘다이빙’



새벽을 여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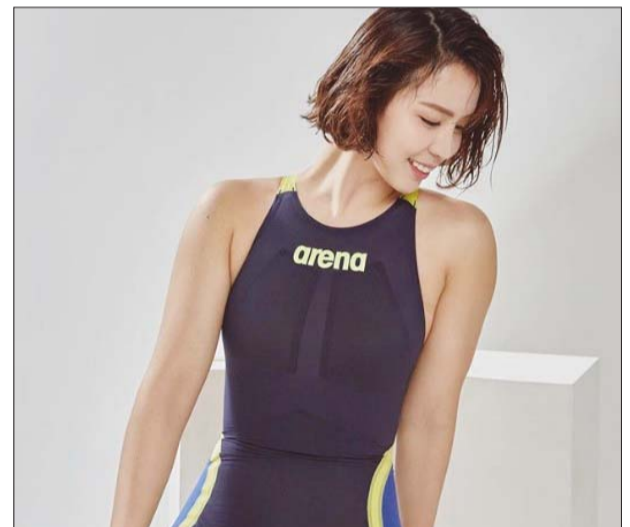
국가대표 수영선수 임다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회 연기에도 선수·코치·강연자 등 다양한 활동 이어가

세계선수권대회서 ‘오픈워터’ 도전 스포츠 꿈나무 위한 강연·칼럼 기고



지난달 31일 국민대 스포츠윤리연구소에서 만난 국가대표 수영선수 임다연. /박미경 기자



스포츠모델로 활약 중인 임다연 선수. /임다연 제공

◆스포츠 꿈나무 위한 강연자로도 활약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지만 프로N잡러로 살아가는 임다연 선수의 하루 일과는 새벽 2~3시가 돼서야 끝난다.

임다연 선수는 “아침에 일어나 새벽 수영 또는 연구실 출근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나가기 시작한다”며 “논문·칼럼·보고서 쓰고, 대학교 강의 준비하고, 중간중간 아이들을 지도할 일이 있으면 나갔다 오기도 한다.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매일 새벽 2~3시가 훌쩍 넘는다”고 했다.

임 선수는 국민대에서 스포츠윤리학전공 체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강사, 대한체육회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강사 등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강연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역 선수로서 정기적으로 칼럼도 기고한다.

그는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이 그들이 곧 스포츠의 미래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2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며 수영계에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후배 선수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수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칼럼을 쓴다”고 밝혔다.

임 선수는 수영복 브랜드 아레나 등 스포츠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그는 “현역 수영선수로 내가 수영복 대표 브랜드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이 생긴다”며 “촬영할 때는 전문 모델이 아니다 보니 어색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 몰랐던 모습을 촬영본을 통해 보는 것이 재미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년에도 프로N잡러 임다연 선수의 도전은 이어진다.

“2021년 30대에 들어서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이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꿈나무 대표팀 감독을 이어가고, 스포츠모델도 지속하고, 칼럼도, 강연도, 학교 수업도 지금처럼 그대로 해나갈 겁니다(웃음). 20대의 치열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성숙하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프로N잡러’.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잡(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말이다. 다양한 일을 병행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직업관을 의미한다. 수영 국가대표 임다연 선수(29)에게 붙은 별명이 프로N잡러다. 그는 수영선수, 코치, 강연자, 칼럼니스트, 스포츠모델 등 다양한 명함을 소유하고 활동 중이다.

임다연 선수 프로필

- 2017~2020 국민대 대학원 스포츠윤리학전공 체육학 박사
- 2015~2017 국민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석사
- 2011~2014 건국대 체육학과 학사
- 2008~2011 서울체육고등학교 졸업

- 現 경상남도체육회 수영선수
- 現 수영 꿈나무선수 전담 지도자
- 現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강사
- 現 대한체육회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강사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
- 2016 MBC배 전국수영대회 자유형 100m 금
- 2015 전국체전 자유형 50m 금
- 2014 KBS배 전국수영대회 자유형 50m 100m 금

지난 2020년 스포츠 선수들은 누구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크고 작은 대회들이 연기됐다. 일부 대회가 치러져도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무관중 경기를 경험해야 했다.

수영도 다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2019년 안방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도쿄올림픽이 지난해 7월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1년 연기가 확정됐다. 도쿄올림픽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 올린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수영선수, 코치, 강연자, 칼럼니스트, 스포츠모델 등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임다연(경상남도체육회).

그는 “2020년은 수영선수로서 정말 실망스러운 한 해였다”며 “그러나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다. 결국 해낼 선수는 해냈다”고 말했다.

◆수영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스포츠

임 선수는 ▲2014년 KBS배 전국수영대회 자유형 50m, 100m 금메달 ▲2015년 전국체전 자유형 50m 금메달 ▲2016년 MBC배 전국수영대회 자유형 100m 금메달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국가대표 수영선수다. 또 한국수영계 최초로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어렸을 적 악성빈혈로 빈혈약을 달고 살았다.

임 선수는 “햇빛을 보면 쓰러질 정도로 몸이 약해 의사가 실내운동을 권유했다”며 “7살에 처음 실내 운동인 수영과 스케이트를 함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영이라는 운동종목에 대해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남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수영은 아니다”라며 “수영은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스포츠다. 고요한 물속에서 내 몸에 있는 온 신경 하나하나를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임다연 선수는 ‘오픈워터’라는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종목에 출전했다. 한국 여자 선수로서는 처음이다. ‘오픈워터’는 수영장이 아닌 강이나 바다 등 자연에서 수영경기를 펼치는 일종의 ‘수영 마라톤’이다.

특히 임다연 선수는 수영종목 중에서도 50m, 100m 종목에 주로 출전하는 초단거리 선수다.

임 선수는 오픈워터라는 장거리 종목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내가 수영선수로는 노장에 속한다. 워낙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은퇴 전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취하고 싶었다”며 “단거리 선수는 장거리를 하지 못할 것이란 편견 또한 깨고 싶었고, 세계선수권을 통해 그걸 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